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3.01~26.03.31)

### □ 국토교통데이터플랫폼의 이익 활용 촉진을 위한 의견교환회 개최 [3/3]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3일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제10회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 의견 교환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제3기 과제인 스마트 인프라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진행됨
-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은 흩어져 있는 지형 정보와 인프라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민간과 공공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는 디지털 기반임. 이번 회의에서는 플랫폼의 최신 업데이트 현황과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연계 기능 및 보급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임. 특히 SIP와 연계해 실시된 생태계 사회 실험의 실증 조사 데이터 제공 사례와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실효성을 점검함
- 의견 교환회는 오는 3월 10일 오후 1시 15분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실시됨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참사관(이노베이션) 그룹과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과 정책적 방향성을 설명함. 이번 발표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스마트 시티와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실현하겠다는 일본의 디지털 정책 의지를 반영함.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인프라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표준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힘

### □ 새로운 관민연계수법의 구축을 위해 어필 타임 개최 [3/5]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민간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17일부터 양일간 어필 타임 행사를 개최함. 이번 행사는 지자체가 직면한 행정 수요인 '니즈(Needs)'와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해결 방안인 '시즈(Seeds)'를 서로 공유하고 최적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됨. 인프라 매니지먼트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그린 사회 실현 등 지역사회가 안은 복합적인 문제를 새로운 민관 연계 수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 본 행사의 추진 배경임
- 행사는 3월 17일과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줌(Zoom) 웨비나를 통한 온라인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이번 회의에는 총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21건의 과제와 49개 민간 기업이 제시한 64건의 해결 방안이 매칭되어 각 단체의 구체적인 프리젠테이션이 실시됨. 특히 지속 가능한 인프라 관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제안이 접수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성은 어필 타임 종료 후인 3월 25일에 상호 관심 있는 단체 간의 1대1 '개별 대화 이벤트'를 추가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이번 시도가 국민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UN과 공동으로 제2회 질 높은 도로인프라 정비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3/6]**

- 일본 국토교통성은 유엔 지역개발센터(UNCRD)와 공동으로 '제2회 질 높은 도로 인프라 정비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지난 2월 25일부터 3일간 도쿄 국連대학교에서 개최했음.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선진 도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됨. 특히 기후 변화와 시설 노후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 속에서 더욱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행사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 워크숍에는 인도, 베트남, 케냐 등 11개국의 도로 분야 고위 관료 및 행정관 16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현황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침. 프로그램은 도쿄대학교 교수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도로 포장, 강교량, 콘크리트 구조물의 선진 기술 세션 및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노하우 공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됨. 참석자들은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중앙자동차도 타마천 교량 판개공사 현장과 재생 아스팔트 플랜트 등을 직접 방문하며 일본의 실제 시공 및 관리 역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짐
-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협회가 협력하여 녹색 도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 논의하며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함. 국토교통성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확인된 각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일본의 우수한 도로 인프라 기술의 해외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러한 국제적 지식 공유의 장이 참여국들의 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전 세계적 도로 안전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도 주택건축기술 국제전개 지원사업 보고 세미나와 J-HAB 정보공유세미나 개최 [3/6]**

-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주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오는 3월 23일 '주택건축기술 국제전개 지원사업 보고 세미나' 및 'J-HAB 정보 공유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행사는 민관 협력을 통해 일본 주택 산업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플랫폼인 '주택·건축 해외전개 연계협의회(J-HAB)'의 활동 일환으로 기획됨. 국내 주택시장의 포화 상태를 극복하고 일본 특유의 고품질 건축 기술을 해외시장에 확산시키려는 정책적 의지가 이번 행사의 핵심 배경임
- 세미나는 도쿄 치요다구 소재 일본건축센터 회의실에서의 대면 방식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오전 9시 20분부터 진행될 예정임
- 1부에서는 도시재생기구(UR)와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이 참여하여 지난 1년간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 성과와 실질적인 현지 노하우를 상세히 보고함.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세키스이하우스, 스미토모임업 등 일본을 대표하는 주택 기업들이 직접 등판하여 자사의 해외 사업 전략과 국가별 맞춤형 진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됨
- 행사 종료 후에는 대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국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별도의 네트워킹 시간이 제공되어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함.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일본 내 기업이 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8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음
- 이번 세미나가 일본 주택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민관이 힘을 합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도로 정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모집의 심사 결과에 대해 [3/10]**

-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로 정책의 질적 향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도로 정책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과제 3건을 신규 채택했다고 발표함.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제56회 신도로기술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학계의 지혜와 산업계의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도로 인프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사회적 과제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민관학의 역량을 결집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으려는 것이 이번 연구 채택의 주요 배경임

- 신도로기술회의는 코치공과대학교의 나스 세이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전문가 자문 기구로, 도로 분야의 첨단 기술 도입을 이끌어 왔음.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총 8건의 연구 제안 중 기술적 타당성과 정책 기여도가 높은 3개 과제가 엄선됨. ①이동 드론을 활용한 광역 교통 상태 추정 기술 개발, ②고속도로 차종 구분 설정 및 차종별 요금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③가변형 증성자원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 시설물 비파괴 3D 계측 기술 개발의 3개 과제가 선발됨. 채택된 과제들은 향후 2026년도부터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기술 연구와 실증 과정을 거치며 도로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임
- 정부는 채택된 연구 과제들에 대해 회의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시 계획을 조정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 상세한 회의 결과와 선정된 연구의 디테일한 내용은 국토교통성 도로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계획임. 이번 연구 사업이 미래 지향적인 도로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공공건축공사 적산기준류 개정 [3/11]

-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문 공사업체의 고용 유지와 필요 경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공사 적산기준류'를 전격 개정한다고 발표함.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공사업체의 제경비율과 일반 관리비율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공사비 산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행됨
- 인력 부족과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배경임
- 공공건축공사 표준단가 적산기준에서 복합단가의 전문공사업체의 제경비 비율은 공종 별로 규정되어 있었음. 이번 개정으로 「재료비, 소모재료비」와 「노무비」의 각각에 각각의 전공종 공통비율(재료비/소모재료비:9~13%, 노무비:42~52%)을 곱하여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 종합건설업체(원도급사) 등의 본사 유지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는 '일반관리비 등 비율'을 개정하였음. 공사 규모(직접공사비+공통가설비)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요율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3백 만 엔 이하 공사의 일반관리비 비율은 20.11%, 30억 엔 초과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9.34%임
- 개정안은 '공공건축공사 표준단가 적산기준'과 '공공건축공사 공통비 적산기준' 등 총 5개 기술 기준을 포함하며 오는 4월 이후 입찰을 개시하는 관청 영전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임

#### □ 건축·도시의 DX 컨퍼런스 개최 [3/11]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축과 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건축·도시의 DX 컨퍼런스'를 오는 3월 18일 개최한다고 발표함. 이번 행사는 3차원 도시 모델(PLATEAU), 건축 BIM, 부동산 ID 등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건축·도시의 DX'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이 방재, 물류, 탈탄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산학관의 연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본 컨퍼런스의 핵심 배경임

- 행사는 도쿄 국제 포럼 현장 개최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성의 중장기 비전 발표 및 관계 부처의 분야별 추진 현황 소개가 포함됨. 특히 도쿄대학교, 동일본여객철도(JR동일본), 아이즈와카마쓰시 등 각계 전문가와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인 도시 관리 및 서비스 혁신 사례를 직접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무 디테일을 공유함
- 보도 관계자는 별도의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취재 및 촬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 정책 홍보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될 중장기 비전이 일본의 도시 공간을 디지털로 재설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우크라이나 부흥을 위한 관민 미션(제2회) 파견 [3/13]

- 일본 국토교통성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제2차 관민 미션'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함. 이번 파견은 지난해 설립된 '일-우크라이나 국토교통 인프라 복구에 관한 관민협의회(JUPITeR)'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의 선진 기술과 지견을 활용해 구체적인 복구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됨.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신속히 회복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재건을 돕는 것이 이번 미션의 핵심 배경임
- 일-우크라이나 국토교통 인프라 복구에 관한 관민협의회(JUPITeR)는 일본의 토목·건설 기술과 철도, 교량 복구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후 우크라이나의 국토를 체계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국토교통성과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임
- 미션단은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쿠레바 부총리 겸 지방·국토발 전상과 면담하고 관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침.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원격 시공 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의향서(MOC)에 서명하며 기술 협력의 물꼬를 텃음. 또한 주택 분야 협의를 통해 피란민을 위한 조립식 주택 건설 및 주거 환경 회복에 일본 기업의 특화된 노하우를 접목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화 디테일을 논의함
- 다이와하우스공업, 일본통운 등 11개 주요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현지 지자체 관계자들과 1대 1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일본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함. 국토교통성은 이번 미션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일본 기업의 복구 사업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이러한 민관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정착과 더불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그린 인프라의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결과에 대해 [3/16]

- 일본 국토교통성은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환경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 인프라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함
- 이번 사업은 자연환경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인프라 정비와 지역 개발에 활용하는 '그린 인프라'의 사회적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됨.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지속 가능한 국토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을 공공 영역에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 배경임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바이오매가 제안한 “DX기술을 이용한 생물다양성 잠재력 유형화 및 가치화”, △카지마건설 주식회사가 제안한 “녹지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합의 형성 지원 시스템”, △ 주식회사 웨스코가 제안한 “도시 녹수(綠水) 냉각 효과의 정책 평가 모델 구축”의 3건의 신규 프로젝트가 선정 되는 성과를 거둠
- 선정된 과제들은 향후 국토교통성이 제공하는 실제 실증 필드에서 기술의 유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게 됨.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과 실효성 분석을 거쳐 향후 공공 공사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정립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음
-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이 차세대 친환경 건설 기술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 또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 인프라 기술의 실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산업 전반에 보급함으로써 녹색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임
-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이 환경 보호와 지역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고 일본 내 그린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2026년 지가 공시 - 전국 전체 용도에서 5년 연속 상승 [3/17]

-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26,000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지가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지가가 모든 용도 평균 5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번 공시는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권 전반에 걸친 지가 상승 기조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토지 가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저금리 환경과 관광 수요 회복,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맞물리며 일본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이번 지가 상승의 주요 배경임
- △ 전국 지가는 전 용도 평균 2.8%, 주택지 2.1%, 상업지 4.3% 상승하며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포함한 3대 도시권은 전 용도 평균 4.6% 상승하며 전년 보다 상승폭이 확대됨. △ 도쿄권은 주택지 4.5%, 상업지 9.3%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도시권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음. △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점포·호텔 수요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업지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 △ 도쿄 긴자의 '야마노 약기 긴자 본점'이 1㎡당 6,710만 엔을 기록하며 20년 연속 전국 상업지 최고가를 유지했음. △ 주택지 최고가는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1가 지역이 1㎡당 711만 엔으로 9년 연속 전국 주택지 최고 가격을 기록했음. △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상업지가 44.1%, 나가노현 하쿠바촌의 주택지가 33.0% 상승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음

#### □ 건설 종합 통계(2026년1월분) [3/18]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6년 1월 기성총계는 5조 5,29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음
- 1월 민간 기성총계는 3조 1,35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3,801억 엔(전년동월대비 1.3% 증가)이며, 토목은 7,549억 엔(전년동월대비 18.2% 증가)임
- 2026년 1월 공공 기성총계는 2조 3,94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5%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5,287억 엔(전년동월대비 7.7%증가)이며, 토목은 1조 8,655억 엔(전년동월대비 3.6% 증가)임.